



## 고려해운

### 중동항로 서비스 개시

고려해운(대표 박정석)은 중동지역에서의 입지를 보다 강화하고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2월부터 한국-중동 항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고려해운이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중동항로는 'Far East Middle East Service(FMS)'로 한진해운과 흥아해운, STX팬오션 등과 공동운항 형태로 2,5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투입해 주1항차 운 영된다.

FMS의 기항지 로테이션은 부산-상해-심천(치완)-싱가포르-호파칸(KHOR FAKKAN)-두바이(자벨알리)-카라치-싱가포르-치완-부산순이다.

고려해운은 3,000TEU급 컨테이너선 'EMIRATES WASL' 호 1척을 FMS에 투입해 오는 2월23일 부산항 출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한편, 고려해운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중동지역의 물량 증대에 적극 대처하고 파키스탄 등 신규 시장으로 진출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해운

### 지난해 경상이익 4,229억원

세계적인 벌크 전문선사인 대한해운(대표 이진방 회장)이 지난해 벌크선 초호황에 힘입어 창사이래 최대 규모인 1조9,71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한해운은 1월18일 공시를 통해 2007년 매출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1조9,713억원, 영업이익은 271% 증가한 3,310억원, 경상이익은 258% 증가한 4,229억원을 각각 기록해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한해운의 이러한 실적은 지난해 원화강세를 감안할 때 대단한 높은 실적으로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은 1,109억원을 달성해 전분기 대비 30%, 전년 동기 대비 142%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적향상에 대해 대한해운은 "광탄선과 LNG선을 중심으로 한 전용선대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과 더불어 벌크선 시황상승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영업전략으로 국내 대형 해운기업 중 최고의 영업이익율(17%)과 경상이익율(21%)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경영실적을 올린 대한해운은 올해 매출 2조5,000억원, 영업이익 5,200억원이 목표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실적 대비 각각 약 30%, 60%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17%였던 영업이익률을 20%까지 높여 국내외 해운선사중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해운의 2007년 실적은 창사 이래 최고이다. 약 2조원의 매출과 3,3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가능했던 것은 대표적인 벌크선 운임지수인 BDI가 2007년 연초 4,421포인트에 비해 지속적인 상승세로 연평균 약 7,000포인트를 기록한 시황호조에 적극 대응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벌크선 시황이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년도에도 해운시황이 건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한해운은 이미 확보한 경쟁력있는 용선선복의 상당부분을 초호황기에 조기 대선함으로써 시황변동 리스크를 크게 낮추었으며 또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립했다. 당사의 ROE(당기순이익/평균 자기자본)는 53.48%에 달해 국내기업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벌크선과 유조선 등 총 21척, 15억달러를 투자했다. 또 경영실적의 대폭적인 증



가로 국내외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은 대한민국 대표적 해운기업 중의 하나로 우뚝 성장했다.

한편, 대한해운은 올해도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신규 투자에 나서 벌크선, 유조선, LNG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 전문수송선사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 동아탱커

#### 케이프사이즈 1척 추가발주

동아탱커(대표 이종명)가 최근 현대중공업에 18만DWT급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1척을 추가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표된 신조선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동아탱커는 현대중공업에 18만DWT급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1척을 2011년 인도받는 조건으로 신조 발주했다.

내항탱커 선사로 유명한 동아탱커는 외항벌크선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지난해 무려 5척의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을 발주한 바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현대중공업이 18만DWT급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3척을 수주, 이번에 수주한 1척을 포함, 동아탱커에서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총 4척을 수주하게 됐다.

동아탱커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009년 8월에 첫 호선을 인도받은 후 2010년 7월에 2호선, 2010년에 3호선, 2011년에 4호선을 차례로 인도받게 된다.

한편 지난 1968년 설립된 동아탱커는 연안 케미컬 탱커선사로 알려졌었으나 지난 2005년 1994년 건조된 14만9,400DWT급 Dong-A Saturn호를 3,000만달러에 인수하며 외항 부경기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이후 꾸준히 벌크선대를 강화하고 있다.

동아탱커는 이후 1993년 건조된 15만DWT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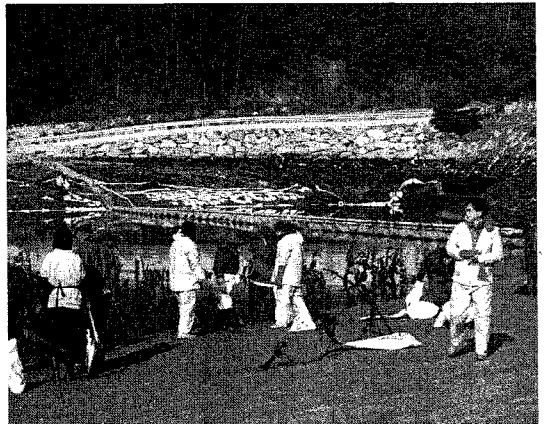
Dong-A Rhea호를 3,750만 달러에, 1986년 건조된 14만7,000DWT급 Dong-A Helios호를 2,100만달러에 매입하면서 총 3척의 케이프사이즈 벌크선대를 운영하고 있다.

Dong-A Rhea호는 현재 스팟시장에 Dong-A Are호, Dong-A Saturn호, Dong-A Helios호 등 나머지 3척은 장기용선시장에 투입돼 있다.

동아탱커는 현재 7,000DWT급 탱커 6척을 연안 운송에 투입하고 있는데 최근 STX조선에 2009년 인도예정인 1만3,000DWT급 IMO II 케미컬 탱커 4척을 발주한 바 있다.

### 선우상선

#### 태안 방제작업 자원봉사활동



선우상선(대표 정인현) 임직원들은 1월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반도를 지원하기 위해 태안군 신두리 해수욕장 인근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신두리 해수욕장 인근 지역은 이미 방제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수면 상의 기름띠는 거의 제거된 상태였으나, 해안가 바위 및 모래에는 아직 기름이 넓은 지역에 걸쳐 묻어 있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제거 작업에 힘을 쏟았다.

한편 선우상선의 한 직원은 “방제 작업에 실제 참여해 보니 겨울철 굴이나 김 양식으로 바쁘게 일해야 할 지역 주민들이 기름 제거 작업에 모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아주 안타까워 보였으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000만원을 태안군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STX팬오션

### 올해 벌크선 등 13척 발주

STX팬오션이 올해 벌크선 11척, 컨테이너선 2척 등 총 13척의 선박을 신조발주할 계획이다. STX팬오션은 1월8일 오전 STX남산타워 23층 대회의실에서 2008년 첫 이사회를 갖고 이와같은 내용의 선박투자계획을 확정했다.

STX팬오션은 올해 초대형광탄선(VLOC) 2척을 2억6,000만달러에 발주하고,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3척을 2억5,650만달러에, 핸디막스 벌크선 4척을 1억5,400만달러에, 핸디사이즈 벌크선 2척을 6,340만달러에 신조 발주하는 등 벌크선 총 11척을 7억3,390만달러에 발주할 계획이다.

또 핸디사이즈 컨테이너선 2척을 8,000만달러에 발주해 올해 총 13척의 선박 신조에 8억1,39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5억8,900만달러보다 48.8% 줄어들었지만 지난 2006년 3억7,400만달러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STX팬오션은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 56억4,300만달러보다 47.1% 증가한 83억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영업이익은 7억7,900만달러로 42.4%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고 경상익은 8억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다.

또한, STX팬오션은 현재 9본부, 13실, 50팀, ITFT인 조직을 9본부, 13실, 55팀, ITFT로 팀을 5

개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한편, STX팬오션이 중국 연운항에 중국선사와 합작으로 선박관리업을 주로 하는 합작사를 최근 설립했다.

STX팬오션은 지난 1월18일 STX팬오션(중국)이 41%, 청도STX-KEYUN Logistics가 10%, 연운항오션쉽핑에이전시(Lianyungang Ocean Shipping Co. Ltd)가 49%를 각각 출자해 연운항글로벌오션쉽핑(Lianyungang Global Ocean Shipping Co. Ltd)을 새로 설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운항글로벌오션쉽핑은 총 200만위안(2억6,074만원)의 자본금이 출자되며 주로 선박운항관리와 같은 선박대리점업을 하게 된다.

STX팬오션은 연운항글로벌오션쉽핑을 통해 장강 등 중국 내륙수로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TX그룹은 연운항글로벌오션쉽핑을 계열사로 편입시킴에 따라 계열사수가 48개사로 늘어 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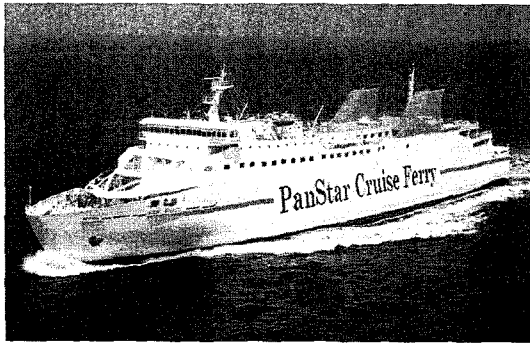
## 팬스타라인닷컴

### 3월말부터 주말크루즈 재개

국내 최초로 주말크루즈와 국제크루즈를 선보이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팬스타라인닷컴이 오는 3월말 크루즈사업을 재개한다.

팬스타라인닷컴(대표이사 김현겸)은 지난해 12월 21일 일본에서 크루즈용 선박을 도입해, 중단됐던 주말크루즈와 연안크루즈, 국제크루즈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팬스타라인닷컴이 이번에 확보한 선박은 전장 130m의 1만5,000톤급 카페리선인 팬스타허니(Panstar honey)호로 고급 2인실 스위트 객실과



4-6인 가족객실, 단체 기업이 이용 가능한 단체실 등 총 500여명 수용할 수 있다. 팬스타허니호에는 현재 부산에서 개조작업이 진행중인데 레스토랑과 실내공연장, 극장, 문화체험실, 어린이를 위한 시설과 쇼핑몰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구비하게 될 예정이다.

팬스타라인닷컴은 지난 2004년 12월, 국내 최초로 주말크루즈를 선보인 팬스타라인닷컴은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팬스타의 주말 크루즈는 한일간 투입되는 카페리선을 이용해 1박 2일동안 태종대와 물운대, 광안대교, 해운대 등 부산의 아름다운 절경과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하고 선상에서 쏘아올려지는 수천발의 불꽃놀이, 이국적인 선상 이벤트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팬스타라인닷컴은 지난해 4월 부산-오사카 카페리항로를 증편하면서 주말 크루즈를 중단했고 이번에 팬스타허니호를 확보하면서 크루즈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게 됐다.

팬스타라인닷컴은 3월말 주말크루즈와 연안크루즈, 국제크루즈를 동시에 시작할 계획인데 주말크루즈는 부산-오사카 카페리항로에 취항중인 팬스타드림호나 팬스트드림호의 스케줄을 조정해 활용하고 연안크루즈와 국제크루즈에는 팬스타허니호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연안크루즈는 한려수도 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통과하는 코스로 부산-

통영-여수-완도-제주라인을 잇는 항로를 기본항로로 하고 시즌별로 서해안과 동해안을 아우르며 전국 연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관광지를 배경으로 코스를 잡을 계획이다.

연안크루즈는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고객이 원하는 일자의 선택 크루즈를 즐길 수 있고 또 자기차량을 가지고 승선할 수도 있어 기항지에서 원하는 관광도 가능하다. 또 국제크루즈는 한달 1-2회씩 일본의 주요 온천지 등 관광명소를 위주로 편성될 예정이다.

팬스타라인닷컴은 3개월을 주기로 연안크루즈와 국제크루즈 스케줄을 발표할 계획인데 4주를 기준으로 3주는 연안크루즈, 1주는 국제크루즈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운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팬스타라인닷컴은 이번 크루즈사업 재개로 "선상공연 등 다양한 크루즈체험과 해양관광과 연계되는 기항지 관광을 제공해 한국적인 크루즈 문화를 만들고 전국민에게 신선한 해양관광문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 창명해운

#### 이 사장 해운물류경영대상 수상

창명해운 이경재 사장이 최근 한국해운물류학회(회장 모수원)가 선정하는 '2008년 해운물류경영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해운물류학회는 2월1일 해운물류경영대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창명해운의 이경재 사장을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명해운은 2004-2006년 3년 동안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 27%,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 23%,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24% 등을 달성해 급변하는 해운 시장에서 용선과 대선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해운경영방식을 도입해 규모에 비해

효율적인 경영성과를 낸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형위원은 한국해운물류학회의 모수원 회장, 해운물류학회 하영석 수석부회장, 한국해사문제연구소 박현규 이사장, 해양수산개발원 이정환 원장,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 한국물류협회 신유균 상근 부회장, 매일경제신문의 신현철 기자 등이 맡았다.

한편 해운물류학회는 2월12일 오후 6시30분 COEX 310호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제17회 해사문화상 수상자인 배병태 한국해법학회 명예 회장에 대한 시상식도 이날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5만t급 대형 컨테이너선을 투입했다.

특히 이 배는 서해항만에 취항하는 컨테이너선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그동안 서해항만에 취항한 가장 큰 컨테이너선은 3만t급이었다.

경기도는 1월25일 평택항 동부두 7번 선석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 송명호 평택시장을 비롯한 하역업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주항로 취항식을 가졌다.

강 장관은 "미주항로 개설로 평택항은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축하의 말을 전한 뒤 "국내 해운산업이 GDP의 4위를 차지하는 동력 산업으로 성장했는데 최근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의 정책기능이 분산되는 위기를 맞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서해안 항만 중 최초로 미주항로 개설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평택항이 세계적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미주항로에는 한진해운 소속 '한진샌프란시스코호' (5만t급)를 포함해 5만t급 컨테이너선 8척이 돌아가며 주 1회 평택항을 출발해 중국 칭다오, 닝보, 상하이를 거쳐 부산, 미국 동부 뉴욕, 월밍턴까지 운항하게 된다.

이날 오전 평택항에서 첫 취항한 한진샌프란시스코호는 길이 289m, 폭 32m 규모로 20피트짜리 컨테이너 4,024개를 동시 선적할 수 있다.

## 천경해운

김윤홍 상무 전무로 승진



천경해운(대표 김지수)이 2월1일자로 김윤홍 상무를 전무이사로 승진발령하는 등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김윤홍 전무(51세)는 지난 1983년에 천경해운에 입사해 줄곧 천경해운을 지켜온 천경맨으로 2003

년에 상무이사로 승진한 바 있다.

한편 천경해운 부산사무소장을 역임해왔던 김창이사는 이번에 상무로 승진되면서 천경해운 계열사인 (주)천경으로 자리를 옮겼다.

△총괄본부장(전무이사) 김윤홍 △(주)천경 상무이사 김창 △부산사무소장 대행 권영현

## 한진해운

5만톤급 대형 컨선 평택항 기항

한진해운(대표 박정원)은 경기도 평택항에서 중국을 거쳐 미국 동부연안을 연결하는 미주항로에



미주항로 취항은 급증하는 수.출입 물동량에 따라 지난해 12월 평택항 동부두 7번 선석을 준공한 데 따른 것으로 7번 선석은 기존 5-6번 선석에 이어 평택항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평택항에는 이번에 개설된 미주항로를 포함해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를 오가는 12개의 컨테이너선 항로가 운항 중이다.

### 현대상선

신임 사장에 김성만씨 선임



현대상선이 신임 사장으로 김성만(金聖晩) 전 한국유리공업 부회장을 영입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1월 11일 사임한 노정의 사장의 후임으로 김성만 씨를 선임했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김성만 신임 사장은 1947년생(61세)으로 경기도와 서울대 공대(공업교육),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산업공학 석사)을 졸업하고 미국 신시내티전자(Cincinnati Electronics)를 거쳐 한국유리 사장과 부회장을 차례로 역임한 전문경영인이다.

현대상선은 “김성만 사장은 국내의 기업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풍부한 경력과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전문 경영인으로 특히, 한국유리의 요직을 모두 역임하면서 무차입 경영을 실현하는 등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현대그룹의 주력기업이자 글로벌 메이저 해운기업인 현대상선의 안정 성장을 지속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선임배경을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또 “김 사장은 경실련의 경제정의기

업상, 공인회계사회의 투명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원칙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대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와 앞으로 현대그룹이 추구하는 투명 경영·윤리경영을 정착시키는데 책임자라는 점도 중요한 발탁배경”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현대상선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현대상선은 김 사장의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절차는 임시주총이 아닌 3월 정기주총에서 다른 안건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주총이 불과 2개월여 남아 있어 굳이 별도로 임시 주총을 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김 사장은 3월 주총이후 정식으로 현대상선 사장에 취임해 최고 경영자로서 본래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현대상선은 1월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사내 등기이사 중 한사람인 이동렬(李東烈) 전무(벌크선영업 본부장)를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해 2개월 여간 업무를 대행기로 결정했다.

[金聖晩 사장 약력] △1947. 9. 15 서울 출생 △1966.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졸업(공업교육학 학사) △1974. 5 美 University of Michigan 졸업(산업공학 석사) △1975~1978 美 Ohio州 Cincinnati Electronics 근무 △1978. 8 한국유리공업(주) 이사(기술담당) △1992. 2 기획조정실장 겸 기술본부장/부사장 △1995. 5 판유리사업본부장/부사장 △1996. 3 한국유리공업(주) 사장 △1997. 3 한국유리공업(주) 대표이사 사장 △2003. 4 한국유리공업(주) 부회장

한편, 지난해 5조919억원의 견조한 매출을 기록했던 현대상선이 올 한해는 이보다 25% 증가한 6조3,515억원을 매출 목표로 잡았다.

현대상선은 1월24일 이사회를 열고 2007년 재무재표 및 영업보고서를 승인하고 2008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면서 이와같은 목표를 잡았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7% 증가한 5조91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영업이익은 3,142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무려 222.8%나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대되면서 경상이익도 전년 대비 47.5% 증가한 1,987억원, 당기순이익도 39.2% 증가한 1,707억원을 달성했다.

현대상선은 이와 같은 경영실적 개선에 대해 구주 및 아주노선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하고 운임이 상승했으며 벌크선 운임이 크게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견조한 경영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올 한해 매출목표를 전년 대비 25% 증가한 6조3,515억원으로, 영업이익 목표는 23% 증가한 3,868억원으로 세워 놓았다. 컨테이너 예상수송량은 294만TEU로 잡았는데 이를 위해 이를 위해 올해 8,600TEU급 컨테이너선 4척과 4,700TEU급 컨테이너선 5척 등 9척의 컨테이너선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올 한해 총 투자금액은 1조1,080억원을 책정했으며 이중 선박확보를 위해 8,32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선박투자운용회사 협의회 창립총회 갖고 공식 출범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발전과 선박투자운용회사의 협력을 도모하게 될 '선박투자운용회사 협의회'가 1월23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선박운용(대표이사 김연신)과 KSF선박금융(대표이사 신주선), 세계로선박금융(대표이사 박동호), C&선박금융(대표이사 정영제) 등 4개 선박운용회사는 1월 23일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일반운



식점에서 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4개 회원사는 회칙을 확정하고 초대 회장에 한국선박운용 김연신 사장을 추대했다.

김연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박펀드가 발전해야 한다는 뜻이 모두 일치돼 오늘 협의회를 만들게 됐다.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핵심기반산업인 해운과 조선산업이 발전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과 해운산업을 근간으로 한 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지희진 해운정책팀장은 "선박투자회사 출범 5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해왔으나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악화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된다. 협의회가 더욱 발전하여 해양수산부에 정식등록단체로 거듭나길 바라고, 운영상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선박금융시장이 확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연신 회장은 "광화문에 선박금융빌딩을 지을 때까지 협의회를 열심히 이끌어가자"고 당부했다.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신임 위원장에 방동식씨 선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26대 위원장에 방동식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당선됐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1월25일 오전 부산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08년 정

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제 26대 연맹위원장에 입후보한 박희성 후보와 방동식 후보의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방동식 후보가 51대 40으로 박희성 위원장을 누르고 26대 연맹위원장에 당선됐다.

신임 방동식 위원장은 지난 2005년 치러진 제25대 연맹위원장 선거에서 박희성 위원장이 43대 40, 3표차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방 위원장은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먼길을 아주 힘들게 돌아온 기분이다. 앞으로 제가 제시한 7대 공약을 실현시켜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방 위원장은 선거운동기간중 △확실한 개혁으로 구태탈피 △각 정책협의회를 연맹 선원정책의 핵심 위원회로 발전 △가맹단위노조의 지원 및 육성 대책 수립 △해외출장 자제 어려운 가맹노조 지원 △전문가들로 정책자문단 구성 △직원의 자질향상 및 의식개혁 교육 실시 △가맹단위노조에 군림하지 않고 봉사하는 따뜻한 연맹 등 7대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방 위원장은 정기총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존폐위기를 맞고 있는 해양수산부를 지키기 위해 해운항만유관기관들과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현재는 선원행정이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돼 있으나 해양부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로 쪼개지면 선원행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통합 선원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양수산부는 반드시 존치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해상노련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한다는 말이 있듯이 호흡을 맞출 팀이 필요하다”고 밝혀 취임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시사했다.

그러나 방 위원장은 “외부 인력을 영입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직무 평가를 통해 인력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평가에 따른 처우를 개선해 조직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혀 조직내부 개혁을 통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방 위원장은 목포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출신으로 신한해운, 범양상선, 조양상선, 성장해운, 동서해운, 대한해운, 동국상선 등 외항상선 근무 경력이 17년에 달하며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구 해외취업선원노동조합)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왔다.

## 케이엘넷

### 17억원규모 공급계약 체결

물류IT전문기업 (주)케이엘넷(대표 박정천)은 1월 23일 (주)E1과 16억 8000만원 규모의 “E1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시스템 구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E1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의 하역과 연계된 컨테이너 야드(CY), 컨테이너화물 조작장(CFS), 게이트, 야드 등 터미널의 모든 활동 전반에 걸친 물류 인프라와 첨단물류관리시스템을 연결하



여 터미널의 고객서비스를 제고시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 운영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인근의 선광인천 컨테이너터미널과도 정보연계가 용이해져 인천항의 증가하는 컨테이너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되는 됴므로써 E1컨테이너터미널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이다.

케이엘넷 박정천 대표는 “에너지 전문기업인 (주)E1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물류사업의 핵심인 E1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주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지난해 말 개발완료된 WEB 버전의 터미널운영시스템도 조만간 선보일 계획이어서 수주에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선급

### 대형컨선 기술력 인정받아

한국선급(KR, 회장 오공균)은 최근 그리스 최대 선사 중 하나인 Danaos Shipping 사가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1만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3척에 대한 신조계약에서 한국선급을 주관 선급으로 선정하였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신조발주시 품질과 기술적인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온 그리스의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Danaos사가 처음으로 한국선급을 주관선급으로 선정한 것은 한국선급의 신조선 검사에 대한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Danaos사의 Coustas 회장은 한국선급 오공균 회장과의 대담에서 “한국선급이 세계조선강국인 한국 조선소들과의 협력관계가 잘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인력과 신조선 검사능력이 우수함을 잘

알고 있어 한국선급의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Danaos사는 자사 기술진을 한국선급 대전 본사에 파견하여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건조를 위하여 한국선급이 개발한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교육을 받은 바 있다.

한국선급은 그동안 세계일류선급으로의 도약을 위해 기술력과 국제신뢰도 향상에 꾸준히 노력해왔다. 한국선급이 개발한 공통구조구축 설계 프로그램인 SeaTrust-CSR은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SeaTrust-CSR은 한국 내 대형 조선소에서 실제선박의 구조설계에 적용하여 그 우수성이 확인되었으며, 조선소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여 구조설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황해객화선사협회

### 회장단 1년 유임의결

황해객화선사협회(회장 박원경)는 2월1일 서울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단 개선문제를 논의하여 회장단 전체를 1년간 유임시키기로 하고 감사에는 새로 진천항운의 사장인 안완수씨를 선임했다.

14개 회원사 중 휴항중에 있는 목포의 포시즌크루즈를 뺀 13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 주요한 토의 내용은 회장단 개선 문제였다. 회장단의 일부가 사임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박원경 회장(한중훼리 대표), 이상조 부회장(단동훼리 대표), 한준규 부회장(대인훼리 대표) 등 회장단 3인이 동시에 1년간 유임하기로 했다. 또한 C&훼리 주재환 사장의 사직으로 결석이 된 감사에는 안완수 진천항운 사장을 새로 선임했다.